

일제강점기 光州의 서적 간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ublishing in Gwangju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안 현 주(Hyeon-Ju Ahn)*

〈목 차〉

- | | |
|------------------|-------------|
| I. 서론 | 2. 간행시기별 분석 |
| II. 광주의 출판문화적 배경 | 3. 간행처별 분석 |
| III. 간행서적 | 4. 판종별 분석 |
| IV. 서지적 특성 | V. 결론 |
| 1. 주제별 분석 | |

초 록

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 광주지역의 출판문화를 파악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원본을 중심으로 서지적 특징을 살펴 본 결과 이 시기에 광주에서는 譜系類, 傳記類, 別集類, 地理類의 서적이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특히 1929년부터 1942년 사이에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가장 큰 변화는 근대적 출판사와 인쇄소가 출현한 점이다. 광주에서는 1930년대에 출판사들이 생겨났는데, 당시 광주지역에서 활동한 출판사로는 光明堂, 南振印刷所, 三奇堂, 永林堂, 崇文堂 등이 있다. 이 출판사들은 누문정, 궁정, 대화정, 명치정, 궁정에 각각 소재하고 있었다. 또한 광주지역의 출판사들은 서울과는 다르게 석판본으로 간행하였다.

키워드: 광주, 일제강점기, 출판, 인쇄, 석판본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ublishing culture in Gwangju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From the bibliographical study through the existing books, it was found that mainly genealogical records, biographies, collective literature, geography books were published. Particularly many books were published from 1929 until 1942. It was a noticeable change in this period that several modern publishers and printing houses appeared. In 1930s the active publishing companies were established in Gwangju, such as Gwangmyungdang, Namjin Printing House, Samkidang, Youngrimdang, Sungmundang etc. These companies were located at Numun-jung, Kung-jung, Daewha-jung, Myungchi-jung, Kum-jung, respectively. They published books by Seokpan(石版)-printing unlike the publishers in Seoul.

Keywords: Gwangju,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Publishing, Printing, Seokpan-printing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 (treenbird@hanmail.net)

•논문접수: 2015년 2월 23일 •최초심사: 2015년 2월 25일 •게재확정: 2015년 3월 1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1), 271-290,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3.271>]

I. 서론

일제의 억압과 통제 속에서 우리민족은 서적 간행을 통해서 조상의 얼을 전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음을 현전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동안 검열과 焚書로 인해 많은 수의 서적이 출간되지 못한 채 사장되거나 散失되었다. 그러한 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민족은 굽히지 않고 출판기술을 발전시켰으며, 다양한 서적을 간행하여 지적 기반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조선시대에 光州는 전라도에서도 全州, 羅州보다 작은 고을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전라남도의 도청소재지가 되었고, 광주학생운동과 전라도 항일의병의 중심지가 되었다. 전라남도지역의 서적 간행에 관하여 조선시대부터 연구를 해 오던 중 일제강점기 광주의 출판문화에 관심을 갖고 여러 해 전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동안 일제강점기 출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민간의 출판활동의 전반적인 구조와 서적유통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방효순 2001; 이중환 외 2001), 일제의 출판 검열 및 통제에 관한 연구(장신 2011; 정진석 2012; 문한별 2013), 국외에서 우리민족의 출판에 관한 연구(박몽구 2010) 등이 이루어졌으나 지방의 출판에 관한 연구(강혜영 2008)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출판에 관한 연구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광주지방의 출판이나 출판사에 대한 정보는 全無하였다. 그 동안 국내외 대학도서관¹⁾의 온라인목록 및 고서목록(윤충남, 김성환 2005), 국립중앙도서관, 선행연구(옥영정 2002), 목록집(호남한문고전연구실 2014)을 통해 일제강점기(1910-1945)에, 광주에서 간행된 서적들을 조사한 결과, 당시 출간 활동한 광주지역 출판사의 윤곽을 접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61종의 현전본을 대상으로 주제별, 간행시기별, 간행처별, 판종별 분석을 하여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광주지역의 출판문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한국인이 주체가 되어 발행한 서적과 한국인이 운영하는 출판사로 국한하였다.

II. 광주의 출판문화적 배경

1896년에 光州는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되면서 근대 도시로 변화되었다. 이전까지 전

1) 고려대, 전남대, 계명대, 연세대, 원광대, 조선대, 동국대 도서관.

라도 서남부의 행정 중심지는 羅州였는데 광주가 도청소재지로 정해진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 광주의 지리적 위치가 전남의 중앙이라 해도 무방할 만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고, 역사적으로 과거 武珍州 및 武州의 중심도시였으며, 무엇보다 1896년 초 행정구역 개편 직전의 나주 단발령 항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징벌적 행정조치의 측면이 강했다.(박선홍 2012, 17)

광주읍성 주변과 경양역 인근의 수백호의 집이 마을을 이루었던 것을 제외하면, 십 수호 정도의 작은 단위로 전통촌락을 형성했던 곳에 사람이 몰리면서 ‘도시’가 만들어졌다. 20세기 초 광주 시가지에 전라남도청, 광주군청, 광주우체사, 광주지방법원 등의 중요행정기관이 세워졌고 더불어 각종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광주읍성 주변의 시가지가 확산되면서 光州面은 1917년 指定面이 되었고, 1931년에는 광주읍, 1935년에는 광주부로 승격하였다(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13, 7). 1919년 말 한국인은 7,845명, 일본인 2,832명, 도합 10, 713명에 불과하였으나 1922년 전남선의 철도 개통 후 14,016명이 되었다. 매해 1,000명 내외의 증가되어 1930년말 한국인은 26,113명, 일본인은 6,199명, 그 외 외국인은 235명으로 도합 32,547명이 되었다(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2004, 200).

광주에 전등불이 켜진 것은 1917년 9월이었으며 상수도가 공급된 것은 1920년, 전화선이 일반인에게 개통된 것은 1911년 4월이었다. 1910년 이후 일제는 시가지를 정비하여 근대화에 앞장선다는 명분아래 광주읍성, 光山館(客舍), 동헌, 선화당, 영청 등을 비롯한 대표적 문화유적을 철거하였다. 철거지역에는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풍 건물이 세워졌으며, 그 신축 건물들에 따라 행정구역도 새롭게 개편되었다. 행정구역상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指定面은 그 거리이름도 동문통, 북문통 혹은 西光山町, 弓町 또는 향사리, 원촌리 등 일본식으로 개칭되었다(천득염 2009, 8). 일본인이 운영하던 인쇄소도 그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齋藤亨太郎이 서문통에서, 岡田一文治가 북문통에서, 광주일보사 인쇄공장은 남문통에 있었다. 광주일보사 인쇄공장은 1912년 10월에 개축하였고 지주는 相川保三이었다. 한국인들이 거주했던 곳은 주로 읍성 밖이었는데, 옛 성 밖에 해당하는 수기옥정, 금정, 부동정, 금계리, 향사리, 누문리, 서남리 등에는 주로 한국인 부락이 이루어진다(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2004, 61-66). 이 시기 직업 형태도 변화가 생기는데 주로 일본인은 본정통 내 광주우체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점포를 차리면서 상업에 종사했고 한국인들은 읍성 밖에서 주로 농업과 양잠업에 종사하였다(천득염 2009, 9).

1900년대에 들어서 일본의 조선 인쇄업계 침투는 점점 노골화 되었는데, 1917년에 전국 70개소 가운데 한국인이 경영하는 곳은 16%인 11개소였으며, 자본의 규모도 전체 14% 정도에 지나지 않은 10만3,110원 뿐이었다(허철중 1988, 117). 산업계의 침투뿐만 아니라 일제는 문화산업의 근간인 출판에 관해 통제와 억압을 하며 우리의 자주성과 독립의 의지를 말살시키려 하였다. 일제는 강점기 통치 직전인 1909년 한국에서 출판법을 공포하였다. 일제는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1호)

출판법을 공포하자마자 이미 유통되던 『유년필독』 등 7종의 도서를 발매반포금지 도서로 규정하고 압수하였다. 1910년 11월에는 51종의 도서를 금지도서 명단에 올렸다. 출판법 제정이전에 발간되어 한국인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국권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들이었다(장신 2011, 238-239). 발매금지와 압수처분된 서적은 역사 지리서, 위인전, 교과용 도서, 실용서 등이었고, 금지도서목록에는 ‘치안방해’, ‘출판법위반’, ‘풍속괴란’ 등 행정처분한 이유를 적시했다(정진석 2012, 33-35). 『조선출판경찰월보』는 조선총독부 출판경찰에 의해 1928년 9월부터 1938년 11월까지 발행된 비밀 검열 자료이다. 여기에는 식민지 시기 일제의 출판 검열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단행본 출간 불허가목록 중에는 40여 편에 가까운 소설들이 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사라지고 말았다(문한별 2013, 202). 또한 1939년에는 조선 초유의 ‘焚書祭’가 있었다. 防共協會 창립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각지 경찰서에서 적색서적을 수거해 불태워 없앴다(매일신보 1939). 출판의 사전검열뿐 아니라 사후 독서통제 또한 강화되었던 것이다.

당시 광주의 산업은 열악하였지만 1910년대에 각종 조합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출판인쇄업계에서도 1919년에 이종대, 조선만, 김득선, 김성옥의 발기로 조합원 60여명이 위원제로 서무, 교양, 조사, 구호 등의 부서를 설치하고 활동하였다. 또한 광주인쇄공청년회도 있었다(박선희 2012, 153-154). 1920년대 초 광주에서는 인쇄공들의 파업이 있었는데, 1921년 4월 누문동에 위치하고 있었던 목산인쇄소의 한국인 직공 6명은 인쇄소 주인(濱村增三郎)이, 야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판개라는 노동자를 해고시키려하자 부당대우를 내세워 동맹휴업을 단행하였다. 결국 이득선이라는 노동자가 해고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복직되었다(동아일보 1921).

광주는 일제강점기에 비로소 작은 고을에서 도시로 변모한 지역의 특색을 보이며, 특히 이 시기에 일본인들이 산업의 중심을 장악하고 한국인들은 철저하게 주변인이었다. 당시의 서적 간행에 관한 기록이나 출판에 관한 참고자료는 찾아 볼 수 없었고 오직 단서가 되는 것은 현전본의 간기와 판권지를 통해서 그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였다.

1930년대에 들어 광주에서는 한국인 출판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현존본 조사에서 나타난 출판사는 光明堂, 南振印刷所, 三奇堂, 崇文堂, 永林堂, 日新堂, 全南印刷株式會社, 英文堂, 愚山印刷所, 光一堂 등이다.

Ⅲ. 간행서적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온라인고서목록 및 고서목록, 국립중앙도서관, 선행연구, 목록집 등을 조사하여 刊記가 있는 서적을 대상으로 현전본서목을 작성하였다. 전남대학교 한문고전연

구실에서는 오래 전부터 호남지방에서 간행되거나 호남과 관련 있는 인물의 문집들을 수집하고 연구해 왔고, 연구의 결과물을 『호남문집 기초목록』으로 간행하였다. 그 중에서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서적들을 살펴보니 석판본, 신연활자본, 목판본, 목활자본으로 간행된 문집들이 많았다. 석판본, 신연활자본, 목활자본, 목판본이 검색어가 되었고 시기(1910-1945)를 조합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온라인고서목록에서 상세검색을 하였다. 또한 『하버드 蓮京圖書館 韓國貴重本 解題』(윤충남, 김성환 2005)에서도 광주에서 간행된 서적들을 검색할 수 있었고, 선행연구(옥영정 2002)에서도 광주의 목활자본을 검색할 수 있었다. 광주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적은 많았으나 간기가 확실한 서적을 대상으로 현존본서목을 작성하였다.

<표 1>은 일제강점기 광주에서 간행된 서적의 현존본서목이다.

<표 1> 일제강점기 광주에서 간행된 서적의 현존본(간행시기순으로 정렬)

(* : ()는 인쇄소)

分類	書名	編著者	刊行處	板種	刊行時期	冊數	所藏處
史部 傳記類	金氏三綱錄	金相惇	敬慕齋	木活字本	1913	2卷1冊	고려대
史部 地理類	光山金氏平章洞實蹟	金喆鉉		木活字本	1914	1冊	전남대
史部 地理類	西岳誌		金昊柱	木活字本	1915	1冊	전남대
史部 地理類	靑溪精舍實記	金昊柱	光州	木活字本	1916	1冊	전남대
史部 譜系類	河南程氏華東統系譜	程炳鉉	程炳鉉	木活字本	1919	2卷2冊	국중
史部 譜系類	溟陽趙氏世譜	趙璟煥	斗洞齋	木活字本	1919	1冊	국중
史部 譜系類	全州崔氏判尹公派譜	崔鳳植	雲林齋	木活字本	1919	5卷3冊	국중
史部 譜系類	咸平李氏家乘譜	李啓煥	咸平李氏譜所	木活字本	1919	1冊	국중
史部 傳記類	南道靑襟案	光州鄉校	光州鄉校	木活字本	1921	3卷3冊	전남대
史部 傳記類	長興鄉座目靑襟先生案	李會淦	光州鄉校	木活字本	1921	1冊	고려대
史部 譜系類	錦城范氏族譜	范倬植	龍湖齋	木活字本	1921	5卷2冊	국중
集部 總集類	湖南吟草	道儒道彰明會	光州鄉校	新鉛活字本	1922	1冊	국중
史部 地理類	光州邑誌	金喜洙	光州鄉校	木活字本	1925	2卷2冊	계명대
史部 地理類	平章洞誌	金喆鉉	光山	木活字本	1925	2卷1冊	국중
子部 類書類	簡禮纂要	趙萬善	三奇堂	石版本	1930	1冊	전남대
集部 別集類	水村集	高廷鳳	高光珍方	木活字本	1930	7卷3冊	전남대
集部 別集類	雲藍先生文集	鄭鳳鉉	鄭淳極家	石版本	1930	10卷5冊	전남대
史部 譜系類	善山柳氏族譜	柳敬迪	南振印刷所	石版本	1930	2冊	국중
史部 地理類	武城書院誌	朴鳳柱	南振印刷所	石版本	1930	2卷2冊	계명대
集部 別集類	樵隱遺稿	李相皓	南振印刷所	石版本	1930	3卷1冊	국중
史部 傳記類	金忠壯公遺事續編	金德齡	金仲現	木活字本	1931	2卷2冊	하버드
史部 譜系類	竹山安氏族首	安秉玉	光州	石版本	1931	3冊	국중
史部 譜系類	善山柳氏族譜	柳善卓	南振印刷所	石版本	1931	1冊	국중
史部 譜系類	曲阜孔氏族譜	孔燾 等	光州	石版本	1932	3卷2冊	원광대
史部 譜系類	曲阜孔氏族譜	孔燾 等	愚山印刷所	石版本	1933	9卷9冊	국중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1호)

史部 編年類	朝鮮歷代要覽	崔達錫	崔達錫	新鉛活字本	1933	1冊	전남대
集部 別集類	三宜堂稿	金夫人	三奇堂	石版本	1933	2卷1冊	국중
集部 總集類	朝鮮朝女流詩文全集	許米子	三奇堂	石版本	1933	4冊	조선대
史部 譜系類	咸平李氏派譜	李正烈	咸平李氏派譜所	木活字本	1934	1冊	국중
史部 傳記類	太宗朝三勳臣錄		永林堂	石版本	1934	1冊	국중
史部 地理類	武陽院誌	崔鍾燮	武陽書院 (英文堂)*	石版本	1934	2卷2冊	전남대
史部 譜系類	南平文氏派譜	文在冕	竹坡齋	木活字本	1934	2卷2冊	국중
史部 傳記類	太宗朝三勳臣會盟錄	金鎬永	永林堂	石版本	1934	1冊	국중
史部 傳記類	湖南歷代人物圖	尹榮善	崇文堂	石版本	1935	1冊	전남대
史部 地理類	朝鮮湖南誌	尹宗林	朝鮮湖南誌 發行所	新鉛活字本	1935	7卷7冊	전남대
史部 譜系類	仁同張氏世譜	張奎煥	崇文堂	石版本	1935	12卷12冊	하버드
史部 譜系類	南平文氏族譜	文鍾植	南涯齋	石版本	1935	2卷2冊	전남대
史部 譜系類	耽津崔氏世蹟	崔鍾涉	光州耽津崔氏 譜所	石版本	1935	2卷2冊	전남대
集部 別集類	撫松私稿	徐台煥	撫松亭 (永林堂)*	石版本	1935	2卷1冊	전남대
史部 傳記類	隨行案	高光雨	光州鄉校 (永林堂)*	石版本	1935	1冊	국중
史部 傳記類	李朝縉紳譜	金永瑚	崇文堂	石版本	1935	2冊	국중
集部 別集類	謙齋集	奇學敬	奇南鍾家	新鉛活字本	1935	8卷2冊	전남대
集部 別集類	甲戌新刊耽津崔氏 族譜	崔鍾涉	耽津崔氏 族譜所	石版本	1935	20冊	전남대
史部 傳記類	湖南忠義圖	尹榮善	崇文堂	石版本	1935	1冊	전남대
史部 地理類	玉果邑誌	許科	玉果文廟 (永林堂)*	石版本	1937	4卷2冊	전남대
史部 傳記類	孝行錄	柳大鉉	日新堂	石版本	1936	1冊	전남대
史部 傳記類	湖南孝烈圖	韓銀柱	崇文堂	石版本	1936	1冊	전남대
史部 譜系類	咸平李氏派譜	李正烈	咸平李氏派譜所	木活字本	1937	4冊	국중
集部 別集類	楊波遺稿	鄭洛教		石版本	1938	1冊	하버드
集部 總集類	陽波亭詩稿	鄭尙好	陽波農場 (全南印刷)*	新鉛活字本	1938	2卷1冊	하버드
集部 總集類	北窓古玉先生集	鄭謙 等	光山	石版本	1939		하버드
子部 儒家類	儀式圖說	金南坤	光明堂	石版本	1940	2卷1冊	전남대
史部 存案類	光州鄉校慕聖契案	光州鄉校	光州鄉校	石版本	1940	3卷3冊	전남대
史部 地理類	秉天祠誌	池應鉉	光山	石版本	1941	4卷2冊	전남대
集部 別集類	三山家藏	池源桂宣	光明印刷所	石版本	1942	3卷1冊	원광대
史部 傳記類	池氏文獻誌	池源桂宣	池源桂宣	石版本	1942	1冊	전남대
史部 譜系類	青襟世譜	鄭寅燦	李致瑞方	石版本	1942	1冊	전남대
集部 總集類	瑞石遊覽	鄭寅燦	三奇堂	石版本	1942	1冊	연세대
史部 傳記類	鵬南實記	池昌宣	光明印刷所	石版本	1942	1冊	전남대
集部 別集類	竹塢先生遺稿	魏道한	光一堂	石版本	1943	2卷1冊	연세대
史部 譜系類	盧氏大同宗安	盧錫正	盧氏三陵檀 宗會	石版本	1943	24卷6冊	하버드

조사결과 일제강점기 광주에서 간행된 서적의 현전본은 61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이후 1913년부터 1943년까지 광주에서는 傳記類, 譜系類, 地理類, 存案類, 編年類, 儒家類, 類書類, 別集類, 總集類 등을 간행하였다. 간행된 서적의 판종은 목활자본, 신연활자본, 석판본 등이고, 간행처는 광주향교, 서원, 재실, 누정, 사가, 출판사 등이다.

IV. 서지적 특성

일제강점기에 광주에서 간행된 서적은 조사한 결과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나 간행 기록이 남아있는 61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주제별, 간행시기별, 간행처별, 판종별 분석을 하여 그 서지적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1. 주제별 분석

광주에서 간행된 서적을 四部分類法에 의거하여 주제별 분포를 <표 2>로 나타내었다.

<표 2> 광주에서 간행된 현전본의 주제별 분포

분류	종수(비율)	분류	종수(비율)
史	譜系類	子	類書類
	傳記類		儒家類
	地理類		합계
	存案類	集	別集類
	編年類		總集類
	합계		합계
총계	61종(100%)		

일제강점기 광주에서는 譜系類, 傳記類, 別集類, 地理類의 서적이 가장 많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중의 족보와 조상의 전기 및 문집 등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조선후기에도 전남지역에서는 보계류를 가장 많이 간행한 특징(안현주 2012, 428)을 보였는데, 그 현상은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져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통계상 가장 많은 종류의 허가된 출판물이 족보였던 것이다(정진석 2012, 40). 족보 출판이 가장 많았던 것은 조선의 특수한 현상으로 宗約所가 왕성하였던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매일신보 1930).

보계류는 1919년부터 1937년 동안에 간행이 이루어졌고, 전기류는 1913년부터 1942년 동안에 간행되었다. 비교적 일제강점기 초반부터 말기까지 고루 간행된 것이다. 이에 반해 별 집류는 1930년부터 1943년 동안 간행되었는데 일제강점기 말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된 것이

특기할만하다. 전국적으로는 1920년대 족보, 遺稿, 文集을 합한 허가건수는 2,613건에 달하여 전체 출판 허가 건수의 24%를 차지한다. 1930년대 이후에는 출판건수가 줄어들어 족보, 유고, 문집을 합한 건수는 2,825건으로 전체의 13.5%를 차지하여 1920년대에 비하여 줄어들었다(정진석 2012, 41-42). 그러나 광주는 1930년대부터 문집발간건수가 늘었는데 중앙보다 서서히 그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호남지방 중 가장 큰 도시인 전주의 방각본 간행처에서는 집부 소설류를 가장 많이 간행했으며, 대중의 수요가 많은 책들 - 『천자문』, 『아회원람』, 『통감절요』, 『춘향전』, 『구운몽』, 『유충열전』, 『도옹전』 - 은 중복해서 출판하기도 했다(강혜영 2008, 116). 광주는 전주와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행된 서적의 주제별 분포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서울에서는 가장 지속적으로 출판활동을 했던 5개 출판사 전체 출판물 중 중수의 55%가 문학관련서이다(방효순 2001, 170).

조선후기(임진왜란 이후~일제강점기)의 광주의 간행상황과 비교하면, 서적 간행의 다양성이 매우 축소됨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위에 언급된 주제 외에도 詩類, 小學類, 政法類, 藝術類, 道家類 등의 서적이 간행되었다(안현주 2012, 427-430). 출판이 허락된 서적만을 간행하는 시대적 요인과 일제의 압박을 피해 해외에서 출판을 단행한 활동들도 출판의 다양성을 축소시켰다고 생각한다.

2. 간행시기별 분석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시기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지에 관해서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는데 방효순은 5단계로 나누었고 이중환 등은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방효순 2001; 이중환 외 2001).

방효순은 출판의 흐름에 따라

제1기 : 1910년 - 1919년 : 신식문화수용기(출판법(1909년 2월 23일 법률 제 6호)으로 인해 통제)

제2기 : 1920년 - 1928년 : 문화정치시대, 출판문화의 발전기

제3기 : 1929년 - 1936년 : 출판문화의 침체기

제4기 : 1937년 - 1940년 : 출판문화의 부흥기

제5기 : 1941년 - 1945년 : 일제의 전쟁 야욕으로 인한 암흑기로 5단계로 나누었고,

이중환 등은 역사적 분기점을 기준으로

제1기 : 1910년 - 1919년 : 강점기 시작부터 3·1 운동까지

제2기 : 1920년 - 1939년 : 3·1 운동 후부터 친일강요기까지

제3기 : 1940년 - 1945년 : 해방까지 3단계로 나누었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시기구분을 기준으로 광주의 서적 간행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1기(1910년 - 1919년)에는 8종이 간행되었고, 제2기(1920년 - 1939년)에는 43종이 간행되었으며, 제3기(1940년 - 1945)에는 10종이 간행되었다. <표 2>를 보면 강점기 시작한 1910년부터 1928년까지는 아주 미미하게 간행되다가 1929년부터 1942년 사이에 서적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32년부터 1935년 사이에는 전체의 34.43%(21종)가 이루어졌다. 제2기의 중간지점인 1929년부터 활발한 서적 간행이 있었는데 이 시기는 광주지역의 출판사들이 서적을 간행한 시기와 일치한다. 즉 일제강점기 광주지역에서는 출판사들의 서적 간행이 출판문화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은 현전본의 시기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현전본의 시기별 분포

제1기			제2기						제3기	
1910	1914	1917	1920	1923	1926	1929	1932	1936	1940	1943
~	~	~	~	~	~	~	~	~	~	~
1913	1916	1919	1922	1925	1928	1931	1935	1939	1942	1945
1	3	4	4	2	0	9	21	7	8	2
8종(13.11%)			43종(70.49%)						10종(16.39%)	

3. 간행처별 분석

일제강점기 광주지역에서 서적 간행을 했던 곳은 光州鄉校, 書院, 樓亭, 齋室, 出版社, 私家 등이었다. 조선시대 이후 일제강점기로 전환된 시기에 가장 큰 변화는 근대적 출판사와 인쇄소가 출현한 점이다. 광주에서 간행된 서적을 각 간행처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광주향교

광주향교에서 간행한 서적은 『南道靑襟案(1921)』, 『長興鄉座目靑襟先生案(1921)』, 『湖南吟草(1922)』, 『光州邑誌(1925)』, 『隨行案(1935)』 등 5종이 현전한다. 광주향교에서 서적을 발행한 시기는 1921년부터 1925년까지 활발하였고, 10년 후에 『隨行案』을 간행하였다. 1921년부터 1925년까지는 목활자본이 주를 이루었지만, 1935년에는 永林堂에 인쇄를 의뢰하여 석판본으로 발행하였다. 『南道靑襟案』, 『長興鄉座目靑襟先生案』 『隨行案』은 인명록이고, 『湖南吟草(1922)』는 道儒道彰明會의 회원들의 詩를 모은 시집이며, 국한문혼용으로 되어 있다. 『光州邑誌』는 일제의 필요에 의해 편찬된 읍지이다.

나. 출판사 및 인쇄소

1910년대에 국내에 존재하던 약 70여개의 인쇄소 중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11개 소인 데 비해, 1920년대에는 서적, 신문, 잡지, 각종 관공서의 인쇄물량이 많아지면서 인쇄업이 기업화되었고,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활기를 띠어 인쇄업이 중추적 산업 분야의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다(방효순 2001, 11).

지방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광주에서도 1930년대에 출판사들이 생겨났는데, 당시 광주지역에 서 활동한 출판사로는 光明堂, 南振印刷所, 三奇堂, 崇文堂, 永林堂, 日新堂, 全南印刷株式會社, 英文堂, 愚山印刷所, 光一堂 등이 있다. 이들 출판사는 거의 대부분 石版本을 간행하였다. 따라서 판권지에 명시된 인쇄소는 光明石版印刷所, 南振石版印刷所, 三奇堂石版印刷所 등으로 나타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개인소장본의 판권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진인쇄소

남진인쇄소에서 간행한 서적으로는 『善山柳氏派譜』 2중, 『樵隱遺稿』, 『武城書院院誌』 등이 현전하고 있다. 이들은 1930년부터 1931년에 석판본으로 출간되었다. 아래의 판권지를 살펴보면, 남진인쇄소는 1930년에 광주면 대정정에 소재하다가 1931년 광주면 궁정으로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허가사항이 날자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樵隱遺稿』의 판권지

昭和五年(1930) 8月 20日 印刷

昭和五年(1930) 9月 10日 發行

朝鮮總督府許可(昭和五年(1930) 7月 15日)

著作 兼 發行者 全羅南道光州郡 瑞坊面 梧峙里7 294番地 鄭待鉉

印刷者 全羅南道光州郡 光州面 大正町 10番地 李東植

印刷所 全羅南道光州郡 光州面 大正町 10番地 南振印刷所

發行所 全羅南道光州郡 光州面 大正町 10番地 南振印刷所

『善山柳氏派譜』의 판권지

昭和六年(1931) 1月 20日 印刷

昭和六年(1931) 2月 20日 發行

朝鮮總督府許可(昭和六年(1931)) 1月 12日

著作 兼 發行者 全南 谷城郡 梧谷面 德山里7 170番地 柳善卓

印刷者 全南 光州郡 光州面 弓町 6番地 丁在述

印刷所 全南 光州郡 光州面 弓町 6番地 南振印刷所
發行所 全南 光州郡 光州面 弓町 6番地 南振印刷所

(2) 영림당

영림당에서 간행한 서적은 『太宗朝三勳臣會盟錄』, 『太宗朝三勳臣錄』, 『玉果邑誌』 등이다. 또한 『撫松私稿』와 『隨行案』은 영림당에서 인쇄하였고 발행소는 각각 撫松亭과 光州鄉校로 기재되어 있다. 관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太宗朝三勳臣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관련지

太宗朝三勳臣錄壹冊

昭和九年(1934) 10月 12日 印刷

昭和九年(1934) 11月 13日 發行

(朝鮮總督府許可)

定價：金七十錢

著作 兼 發行者 全羅南道光州郡 光州邑 明治町 5丁目 209番地 金鎬永

印刷者 全羅南道光州郡 光州邑 明治町 5丁目 209番地 尹放林

印刷所 全羅南道光州郡 光州邑 明治町 5丁目 209番地 永林堂石版印刷所

發行所 全羅南道光州郡 光州邑 明治町 5丁目 209番地 永林堂石版印刷所

『撫松私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관련지

昭和十年(1935) 8月 24日 印刷

昭和十年(1935) 9月 5日 發行

著作 兼 發行者 光州郡 大村面 漆石里 179番地 徐台煥

印刷者 全羅南道光州郡 光州邑 明治町 5丁目 209番地 尹泳龍

印刷所 全羅南道光州郡 光州邑 明治町 5丁目 209番地 永林堂石版印刷所

發行所 光州郡 大村面 漆石里 撫松亭

『隨行案』(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관련지

昭和十年(1935) 8月 13日 印刷

昭和十年(1935) 9月 20日 發行

昭和十年(1935) 9月 7日 總督府指令 第1416號

複製不許

著作 兼 發行者 本籍 光州郡 松汀面 素村里 522番地
住所 京城府 積善洞 111番地 高光雨
印刷所 全羅南道光州郡 光州邑 明治町 5丁目 209番地 永林堂石版印刷所
印刷者 全羅南道光州郡 光州邑 明治町 5丁目 209番地 尹泳龍
發行所 光州鄉校

(3) 송문당

광주의 출판사 중 간행된 서적이 가장 많은 남아 있는 곳이다. 송문당에서 간행된 서적 중 『李朝縉紳譜』, 『湖南歷代人物圖』, 『湖南孝烈圖』, 『湖南忠義圖』, 『仁同張氏世譜』 5종이 현전한다. 이 중 『湖南歷代人物圖』, 『湖南忠義圖』는尹榮善이 편집하였다. 송문당에서 발행한 서적들은 인쇄자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湖南歷代人物圖』는 송문당석판인쇄소의 韓銀柱, 『湖南孝烈圖』는 삼기당석판인쇄소의 丁日燮, 『李朝縉紳譜』는 송문당의 林南大가 인쇄하였다. 『湖南歷代人物圖』, 『湖南孝烈圖』, 『李朝縉紳譜』의 판권지에 조선총독부 허가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湖南歷代人物圖』와 『湖南孝烈圖』의 정가가 표시되어 있다. 판권지를 살펴보면,

『湖南歷代人物圖』(개인소장본)의 판권지

昭和十年(1935) 月 日 印刷

昭和十年(1935) 月 日 發行

板權表示：板權所有, 不許複製

定價：원래 있었으나 검은 줄로 지워져 있음(개인소장본)

湖南歷代人物圖 全一帖(붉은 글씨)

著作 兼 發行者 京城府 光洞 77-63番地 尹榮善

印刷者 光州府 錦町 157番地 韓銀柱

印刷所 光州府 錦町 157番地 崇文堂石版印刷所

發行所 光州府 錦町 157番地 崇文堂

『湖南孝烈圖』(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판권지

昭和十二年(1937) 3月 20日 印刷

昭和十二年(1937) 3月 28日 發行

複製不許

湖南孝烈圖

定價 金 五圓也

著作 兼 發行者 光州府 錦町 157番地 韓銀柱
印刷者 光州府 明治町 4丁目 丁日燮
印刷所 光州府 明治町 4丁目 三奇堂石版印刷所
發行所 光州府 錦町 157番地 崇文堂
總販賣所 光州府 錦町 157番地 崇文堂

『李朝縉紳譜』(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판권지

昭和十年(1935) 6月 30日 印刷

昭和十年(1935) 7月 15日 發行

著作 兼 發行者 京城府 內資洞 159番地 金永湖

印刷者 光州府 錦町 157番地 林南大

印刷所 光州府 錦町 157番地 崇文堂

發行所 光州府 錦町 157番地 崇文堂

(4) 광명당

광명당에서 발행한 『儀式圖說』과 『三山家藏』 중 『儀式圖說』의 인쇄자는 姜大宗이었는데, 1942년에 간행된 『三山家藏』 판권지의 인쇄자는 淸川大宗으로 바뀌었다. 『삼산가장』의 저자의 성명 또한 池原桂宣로 되어 있는데 이는 池永奎의 창씨개명한 이름이다. 南次郎 총독은 부임 후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내세우며 한국인의 황민화를 피해 그 일환으로 39년 11월 10일 제령(制令) 제19호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했는데, 그 내용은 창씨개명과 서양 자제도의 신설이었다. (한국사사전편찬회 2005). 1939년 이후 발행한 서적에는 개정된 조선 민사령이 적용된 것이다. 광명당에서 발행한 『儀式圖說』과 『三山家藏』에는 조선총독부 허가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가표시도 없다.

『儀式圖說』(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판권지

昭和十年(1935) 8月 2日 印刷

昭和十年(1935) 10月 15日 發行

複製不許

著作 兼 發行者 京城府 昌信町 459-4番地 金南坤

印刷者 全南光州府 樓門町 232番地 姜大宗

印刷所 全南光州府 樓門町 232番地 光明堂

發行所 光州府 樓門町 光明堂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1호)

『三山家藏』(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판권지

昭和十七年(1942) 9月 5日 印刷

昭和十七年(1942) 10月 15日 發行 (非賣品)

著作 兼 發行者 全南光州府 明治町 5丁目 158番地 池原桂宣(池永奎)

印刷者 全南光州府 樓門町 232番地 清川大宗

印刷所 全南光州府 樓門町 232番地 光明堂

(5) 三奇堂

삼기당에서 발간한 서적 중 『簡禮纂要』, 『三宜堂稿』, 『瑞石遊覽』, 『朝鮮朝女流詩文全集』이 현전한다. 출판사에서 발행한 유고나 문집은 대체로 정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非賣品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三宜堂稿』는 정가가 있다. 『瑞石遊覽』의 경우 조선총독부 허가가 기재되어 있지만, 『三宜堂稿』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三宜堂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판권지

昭和七年(1932) 11月 20日 印刷

昭和八年(1933) 2月 10日 發行

複製不許

三宜堂稿 定價 金壹圓貳拾錢

著作 兼 發行者 全南光州郡 光州面 明治町 4丁目 60番地 丁日燮

印刷者 全南光州郡 光州面 明治町 4丁目 60番地 趙順吉

印刷所 全南光州郡 光州面 明治町 4丁目 60番地 三奇堂石版印刷所

發行所 三奇堂石版印刷所

『瑞石遊覽』(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판권지

昭和十七年(1942) 6月 18日 印刷

昭和十七年(1942) 6月 23日 發行

瑞石遊覽全一冊

朝鮮總督府許可 指令 第201號

複製不許

著作 兼 發行者 京城府 芳山町 1番地 鄭寅燦

印刷者 光州府 大和町 41番地 丁日燮

印刷所 光州府 大和町 41番地 三奇堂

(6) 英文堂

영문당에서는 『武揚院誌』를 인쇄하였다. 무양서원의 원지이다. 발행처는 무양서원이고 인쇄를 영문당에 의뢰한 것이다. 판권지를 살펴보면,

『武揚院誌』(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판권지
 昭和九年(1934) 9月 25日 印刷
 昭和九年(1934) 9月 30日 發行 (非賣品)
 著作 兼 發行者 全南 光州郡 極樂面 東林里 崔鍾涉
 印刷者 全南 光州邑 明治町 5丁目 9番地 崔潤馨
 印刷所 全南 光州邑 明治町 5丁目 9番地 英文堂
 發行所 武揚書院

이상으로 살펴 본 판권지의 주요내용을 <표 4>로 정리 하였다.

<표 4> 판권지의 기재사항(간행연대순으로 정렬)

서명	간행년	발행소	인쇄소	주소	허가 사항	판권	정가
초은유고	1930	남진인쇄소	남진인쇄소	대정정	○		
선산유씨과보	1931	남진인쇄소	남진인쇄소	공정	○		
삼의당고	1933	삼기당석판인쇄소	삼기당석판인쇄소	명치정		○	○
태종조삼훈신록	1934	영림당석판인쇄소	영림당석판인쇄소	명치정	○		○
무양원지	1934	무양서원	영문당	명치정			
무송사고	1935	무송정	영림당석판인쇄소	명치정			
수행안	1935	광주향교	영림당석판인쇄소	명치정	○	○	
이조진신보	1935	송문당	송문당	금정			
의식도설	1935	광명당	광명당	누문정		○	
호남역대인물도	1935	송문당	송문당석판인쇄소	금정		○	○
호남효열도	1937	송문당	삼기당석판인쇄소	금정(발) 명치정(인)		○	○
서석유람	1942	정인찬	삼기당	대화정	○	○	
삼산가장	1942	지원계선	광명당	누문정			

<표 4>를 살펴보면, 광주지역 출판사들은 발행소와 인쇄소를 겸하고 있었으며, 이 인쇄소들은 모두 석판인쇄소들이다. 발행소와 인쇄소가 동일한 서적도 있지만, 『수행안』의 경우, 광주향교에서 영림당석판인쇄소에 인쇄를 의뢰하였고, 『무양원지』의 경우 무양서원에서 영문당에 인쇄를 의뢰하였다.

남진인쇄소는 대정정에서 공정으로 이전하였으며, 삼기당은 명치정에서 대화정으로 이전하였다. 영림당과 영문당은 명치정에 소재하고, 송문당은 금정에 소재하였다. 명치정은 현재

의 금남로, 금정은 현재의 금동, 대정정은 현재의 대인동, 누문정은 현재의 누문동, 궁정은 현재의 궁동에 해당한다. 위의 누문동은 제외하고, 금남로, 금동, 대인동, 궁동은 지금 광주광역시 동구에 해당한다.

13개의 판권지 중 5개의 판권지에 조선총독부 허가사항이 기재되었고, 판권사항에는 '복제 불허'가 기재되어 있었다. 정가 표시가 있는 서적들은 대중을 대상으로 출판한 서적에 한하여 기재되어 있고, 족보, 서원, 향교 등에서 발행한 서적은 비매품이었다.

다. 齋室, 樓亭, 私家本

광주향교와 출판사에서 발간한 서적 외에 대부분은 齋室, 樓亭, 私家에서 발행한 것으로 간기에 나타나 있다. 먼저 재실에서 간행된 서적을 살펴보면, 『漢陽趙氏世譜』, 『金氏三綱錄』, 『南平文氏族譜』, 『錦城范氏族譜』, 『全州崔氏判尹公派譜』가 있다. 한양조씨세보는 한양조씨 재실인 斗洞齋에서, 김씨삼강록은 광산김씨 재실인 敬慕齋에서, 남평문씨족보는 남평문씨 재실인 竹坡齋와 南涯齋에서, 금성범씨족보는 금성범씨 재실인 龍湖齋에서, 전주최씨판윤공파보는 전주최씨 재실인 雲林齋에서 간행하였다. 재실에서 간행된 서적은 門中단위로 족보와 조상의 전기류를 간행하였다. 족보를 간행한 곳은 재실 외에 譜所, 派譜所, 宗會 등으로 간기에 표기되어 있다.

누정이 간행처로 표기되어 있는 서적에는 『撫松私稿』가 있다. 무송사고는 무송정에서 간행한 서태환의 문집이다. 무송정은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에 위치한 정자인데, 소나무를 아끼고 사랑한 서태환이 자신의 처지를 옛날 도연명에 견주어 '撫孤松而盤桓.'이라는 귀거래사의 글귀를 줄여 무송('撫松')이라 하였다.

私家が 간행처로 표기되어 있는 서적에는 『水村集』, 『謙齋集』, 『雲藍先生文集』, 『陽波亭詩稿』, 『靑襟世譜』, 『河南程氏華東統系譜』, 『金忠壯公遺事續編』, 『西岳誌』, 『朝鮮歷代要覽』 등이 있다. 주로 조상의 문집, 족보 등을 간행하였다.

재실, 누정, 사가에서 간행된 서적은 주로 계보류, 전기류, 별집류 등이다.

4. 판종별 분석

일제강점기 광주에서 간행된 서적들을 판종별로 구분하면 목활자본은 18종, 석판본은 38종, 신연활자본은 5종이다.

목활자는 1913년부터 1925년까지 활발히 사용되다가 그 후 매우 드물게 사용되었다. 광주지역에서 목활자를 사용한 것은 1831년부터 간행기록에 나타난다(안현주 2012, 421). 목활자본은 현재 많이 남아 있지만 간행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서적이 많아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실정이다.

석판본은 1930년부터 1943년까지 출판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석판인쇄방법은 석회석의 일종인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한 石版石을 이용한 것인데, 수용성인 석판석에 지방분을 칠하여 不水溶性部分을 생기게 하고 그 부분에 油性 잉크를 칠하여 인쇄하는 방법이다(유탕일 1991, 43). 석판인쇄는 다른 인쇄에 비해 비교적 공정이 간단하고, 설비가 적게 들면서 대량인쇄를 할 수 있다. 광주지역의 출판사들은 전남인쇄주식회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석판본으로 서적을 간행하였다.

서울의 민간 출판사에서 간행한 서적들은 신연활자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 광주의 출판사에서는 대부분을 석판본으로 간행한 점이 광주 출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일제강점기 광주지역에서 간행된 서적 중 61종의 현전본을 바탕으로 서지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광주에서는 譜系類, 傳記類, 別集類, 地理類의 서적이 가장 많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경우 문학관련 서적이 월등히 높았고, 전주의 경우 소설류와 경서류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광주에서 서적 간행활동은 1910년부터 1928년까지는 아주 미미하게 간행되다가 1929년부터 1942년 사이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적 간행을 했던 곳은 光州鄉校, 書院, 樓亭, 齋室, 出版社, 私家 등이었다. 조선후기 광주지역의 주요 간행처는 재실, 사우, 관아 등(안현주 2012, 421)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가장 큰 변화는 근대적 출판사와 인쇄소가 출현한 점이다. 광주에서는 1930년대에 출판사들이 생겨났는데, 당시 광주지역에서 활동한 출판사로는 光明堂, 南振印刷所, 三奇堂, 崇文堂, 永林堂, 日新堂, 全南印刷株式會社, 英文堂, 愚山印刷所, 光一堂 등이 있다. 이 출판사들은 명치정(현, 금남로), 금정(현, 금동), 대정정(현, 대인동), 누문정(현, 누문동), 궁정(현, 궁동)에 소재하고 있었고, 이들 출판사는 거의 石版本을 간행하였다.

간행된 서적의 판종은 석판본(38종) > 목활자본(18종) > 신연활자본(5) 순으로 많다. 석판본은 1930년부터 1943년까지 출판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서울의 경우 신연활자본이 주종을 이루었던 것과 비교되는 현상이다.

참고문헌

- 강혜영. 2008. 20세기 전반의 전주 지방 서적 발행 활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1: 83-120.
- 계명대학교도서관. <<http://library.kmu.ac.kr/>>. [인용 2014. 9. 20-2015. 2. 20].
- 고려대학교도서관. <<http://library.korea.ac.kr/>>. [인용 2014. 9. 20-2015. 3. 14]
-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13. 『일제강점기 광주의 도시변천』. 광주: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2004. 『일제강점기 光州文獻集』. 광주: 광주광역시립민속관.
- 동국대학교도서관. <<http://lib.dongguk.edu/>>. [인용 2014. 9. 20-2015. 2. 14].
- 문한별. 2013. 『조선출판경찰월보』를 통해서 고찰한 일제강점기 단행본 소설 출판 검열의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7(1): 187-206.
- 박몽구. 2010. 일제 강점기 한민족 출판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59: 89-124.
- 박선희. 2012. 『광주 1백년. 1. 개화기 이후 광주의 삶과 풍속』. 광주: 광주문화재단: 심미안.
- 防共協會創立1周年 赤色書籍蒐集燒却. 1939. 『매일신보』. 8월 13일.
- 방효순. 2001.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안현주. 2012. 조선 후기 전남지역의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407-432.
- 연세대학교도서관. <<http://library.yonsei.ac.kr/>>. [인용 2014. 9. 20- 2015. 3. 14]
- 옥영정. 2002. 『湖南地方 木活字本 研究』.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원광대학교도서관. <<http://elibrary.wonkwang.ac.kr/WONK/>>. [인용 2014. 9. 20-2015. 3. 14]
- 유태일. 1991. 『韓國文獻學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 윤충남, 김성환. 2005. 『하바드 蓮京圖書館 韓國貴重本 解題』. 서울: 景仁文化社.
- 이중환 외. 2001. 『우리 출판 100년』. 서울: 현암사.
- 印刷職工盟休. 1921. 『동아일보』. 4월 14일.
- 장신. 2011. 한국강점 전후 일제의 출판통제와 ‘51종 20만권 焚書사건’의 진상. 『역사와 현실』, 80: 207-240.
- 전남대학교도서관. <<http://lib.jnu.ac.kr/>>. [인용 2014. 9. 20- 2015. 3. 14]
- 정진석. 2012. 일제 강점기의 출판환경과 법적 규제. 『근대서지』, 6: 23-53.
- 조선대학교도서관. <<http://library.chosun.ac.kr/>>. [인용 2014. 9. 20 -2015. 2. 10].
- 族譜刊行이 最高位인 十年間出版傾向. 1930. 『매일신보』. 4월 20일.

- 천득염. 2009. 광주 양림동의 근대도시공간적 의미. 『호남문화연구』, 44: 1-32.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인용 2013. 8. 10 - 2015. 2. 18]
- 허철중. 1988. 『印協四十年史』. 서울: 大韓印刷文化協會.
- 호남한문고전연구실. 2014. 『호남문집 기초목록. 1』. 광주: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지역 문화교류호남재단.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Hyeonju. "A Study on the Publishing Culture of Chonnam Region in the Later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407-432.
- Bang, Hyosun.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the commercial book publishing structur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n Korea(1910-45)*. Ph. D. diss.,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 Korea.
- Cheon, Deukyoun. "A Spatial Meaning of Gwangju Yangrimdong as a Modern City." *Journal of Honam Culture*, 44: 1-32.
- Dept. of Arts and Science in Gwangjucity Folk Museum. 2004. *The collections of literature of Gwangju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Gwangju: Gwangjucity Folk Museum.
- Gwangjucity Folk Museum. 2013. *The urbanization of Gwangju*. Gwangju: Gwangjucity Folk Museum.
- Honam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2014. *Catalogue of Honam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1*. Gwangju: Honam classical literature institute in Chonnam Univ. ·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 Huh, Chuljong. 1988. *The history of 40 years of Korean Print Association*. Seoul: Korean Print Association.
- Jang, Shin. 2011.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Control of Publicat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the 'Burning incident' of 200,000 books."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80: 207-240.
- Jung, Jinsuk. 2012. "The environment of publication and mandatory control during the

- Japanese Occupation period.” *Journal of Modern Bibliography*, 6: 23–53.
- Kang, Haeyoung. 200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ercial Book Publishing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n Jeonju(1909–1937).”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41: 83–120.
- Lee, Jungwhan. et al. 2001. *The 100 year of Korean Publication*. Seoul: Hyunamsa.
- Moon, Han Byoul. 2013. “Aspects of Japanese colonial rule censorship of novels published books in Chosun Gyoengchal Wolbo(The Publication Police Monthly of Korea).” *The Review and the Theory of Korean Literature*, 17(1): 187–206.
- Ok, Young–Jung. *A study on wooden type prints in Ho–nam region*. Ph. D. diss.,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 Korea.
- Park, Mong–Gu. “A Study on Korean People’s Publishing of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Korean publication research*, 59: 89–124.
- Park, Sunhong. 2012. *A century of Gwangju. 1. The life and custom of Gwangju after the Time of Enlightenment*. Gwangju: the foundation of culture in Gwangju: Simmian.
- Yoo, Takil. 1991. *The Study of Korean Philology*. Seoul: Asianculture Co.
- Yoon, Chungnam, Kim, Sungwhan. *The Annotated Catalogue of Korea Rare Books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Harvard University*. Seoul: Kyunginmunwhasa.